

## 원자력이 없는 세상

송명재

한전 원자력환경기술원 연구개발실장

**일** 마 전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신혼 부부가 가지는 자녀 수가 평균 두 명도 안되어 세계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도 이미 프랑스나 미국보다 출산율이 낮아져 이런 추세로라면 앞으로 이십년 후에는 우리 나라의 총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세계에서 출생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다. 비교적 단순한 민족 구성을 가진 스웨덴 인구는 북유럽 게르만족을 중심으로 하여 채 900만명도 안되는 조그마한 나라이다.

스웨덴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바이킹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바이킹은 9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해상 활동이 왕성했던 스웨덴 출신들의 상인·해적들을 말한다. 이들은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침공하여 나라를 세우고 남쪽으로는 라인강과 엘베강을 거슬러 올라가 프랑크 왕을 위협하였으며, 멀리 지중해의 남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까지 정착하는 등 위세가 대단하였다.

바이킹의 활동은 11세기 중엽에 일단 막을 내리긴 했지만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지금도 높은 공업 수준, 완전 고용, 원만한 노사 관계들에 힘입어 실질적인 세계 최고의 선진 대열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 나라도 스웨덴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뷔페 식당의 원조가 바로 스웨덴인 것이다. 여러 그릇에 음식을 담아 놓고 먹을 사람이 필요한 음식을 먹을 만큼 골라다 먹는 식사 방식은 바이킹의 후예인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풍습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즐겨먹는 ‘스모르가스’란 훈제 연어 요리를 말하고 ‘보르드’란 식탁을 말하는데, 식탁 위에 훈제 연어 요리, 얇게 썬 삶은 고기, 햄, 소세지, 새우 같은 주로 찬 음식을 늘어놓고 골라먹는다 해서 이런 식의 식사를 ‘스모르가스 보르드’라고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뷔페 음식이 되었다고 한다. 뷔페 음식은 좁은 장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여 미국 등 여러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원래의 ‘스모르가스 보르드’는 주로 찬 음식들로 이루어졌었으나, 오늘날에는 전채로 먼저 찬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따뜻한 음식, 그리고 후식을 먹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스웨덴은 입헌 군주 정체로 3권 분립주의를 택하고 있다. 국왕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정치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스웨덴에서는 1980년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의회가 국내 원자력발

전소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99년 11월에 바르세보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지하였고, 2호기도 2001년 7월까지 폐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일정이 잡혀져 있다.

국민 투표를 거쳐 내려진 이러한 결정은 스웨덴 정국을 운영하는 정당이 5~6개 이상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며, 또한 수력이 풍부한 나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분히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하고 추측된다. 왜냐하면 모두 1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던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지한다면 석탄 또는 석유 발전소가 이를 대신해야 하고 그러자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 국민들은 차츰 원자력 발전소 대신 들어설 석탄발전소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 및 비용 부담 문제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스웨덴 국민의 57퍼센트가 다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폐지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일에서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전체 발전량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와 19개월간의 긴 논의를 한 후 2000년 6월 8일 드디어 독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1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어 연간 약 1억 7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억제되어 독일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아무런 전력 수급 대책도 없이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독일의 이러한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처사라는 냄새가 난다. 지난 1998년에 시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환경 운동의 주체인 녹색당과 연합하였고, 그 대가로 녹색당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 같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녹색당이 평소에 주장하는 반원전 정책이었고 정권을 잡은 시민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전 폐쇄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나 싶다.

이에 대해 독일의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이러한 처사가 유럽법에 위반되는지 조사를 하고 또 야당은 대안이 없는 정부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에 다음에 정권을 쥐게 되면 현정부의 원전 폐쇄 결정을 무효화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프랑스나 일본, 우리 나라처럼 별다른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자원 수출국들의 완전한 노예가 될 것임은 뻔한 일이다. 돈을 더 내라면 더 내야하고 자원을 조금만 가져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하고 쪼쩍 땀 것이다.

또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은 대체로 화석 연료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해 물질의 배출 또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산성비나 공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지구 온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원자력발전소를 수력·석탄·천연 가스 등을 이용하는 발전소로 대체할 경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건설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원자력이 없는 자원 빈국, 그 나라는 자원 수출국의 노예요, 그 나라의 국민은 봉이 되기 십상이다. ☹